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주간 이벤트

부안군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금연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자 담배 사용으로 인해 매년 8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폐암, 심장병, 뇌졸중 및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에 부안군은 제 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하프길 흡연예방 퀴즈이벤트와 금연을 하고 싶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등록 이벤트, 그리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여객선터미널 및 고속 버스터미널과 매창공원, 서탑공원 4곳에서 금연 캠페인을 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 교육,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질 등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공공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5해피데이' 행사 개최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최정미)은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 수성동 근린공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재미있는 체험놀이와 선물을 제공하는 가정의 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솜사탕, 팝콘 등을 제공하는 먹거리 부스와 킥질, 고무신 던지기, 물고기잡기 등 놀이 부스, 열쇠고리, 모기퇴치제 등을 직접 만드는 체험 부스 등 총 3종류의 부스를 운영했다.

최정미 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주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관이 앞장서서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 행사가 가족 간의 사랑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기관 · 단체 협력 체계 구축

“국내산 조사료 지급율 향상되길”

고창군로컬JOB센터, 지역 6개기관들과 일자리 창출 협약

고창군로컬JOB센터가 25일 고수복합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관내 6개 기관·단체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고창군로컬JOB센터를 비롯해 고창군공공체지원센터,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 고창군체육회, 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클럽, 새고창포터블클럽, 고창웰파크 시티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로 기업체와 지역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축, 지역의 고용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등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폭넓은 분

아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 정치호 회장은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공동목표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심감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사료용 신종 및 ‘당찬’ 현장실증 연시회 개최

부안군은 25일 백산면 대수리에 위치한 사료용 밀 ‘당찬’ 재배 단지에서 수입조사료 대체를 위한 현장실증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함께 개최한 연시회에는 관악현 부안군수,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찬’ 밀 품종소개 및 사업화방안 설명, 사일리지 조제 연시,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 특허등록된 ‘당찬’밀은 선행 연구를 통해 일반 화분과 식물과는 달리 줄기 속이 차 있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당 함량이 높아 조사료 사일리지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소의 조사료 기호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조사료 전연수입개방 계획(’24)에 대응하고자 조사료용 밀 신종 ‘당찬’ 종자를 농가에 조기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김제시, 전남 강진군을 시험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수량·조질, 수량 등, 품질(조단백질, TDN(%), ph 사일리지 점수 등)을 실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당찬 밀 고품질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지급율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수성1·장명지구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정읍시는 지난 23일 수성1·장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석범 판사)를 열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첨단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위원회에서는 수성1지구 699필지(33만7,060.5㎡)와 장명지구 808필지(23만7,756.4㎡)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를 열기 전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 85건을 접수해 타당한 의견은 수용해 경계 재설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계 결정된 사업지구에 이미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 북면(면장 소병호)과 시민소통실(실장 기정서) 직원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정읍 북면사무소·시민소통실, 농가 일손돕기

정읍시 북면(면장 소병호)과 시민소통실(실장 기정서) 직원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두 팔을 걷어 붙였다.

24일 진행된 농촌일손돕기는 북면과 시민소통실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관내 고추농가를 찾아 고추 결순제거, 담배 제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작업은 우수한 품질의 고추가 생산될 수 있는 필수적인 작업으로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농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움을 받은 농민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비쁜 업무에도 직접 농가를 찾아 도움을 준 정읍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소병호 북면장은 “매년 농번기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 오늘 일손돕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농가의 시름이 덜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농촌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홀로 살거나 장애가 있는 농민 등 취약 농가와 과수, 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필요한 농가, 기상재해 피해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벼 못자리와 과실 수기, 마늘과 양파 등의 묘 옮겨 심기 작업도 지원한다.

농촌 일손돕기에 동참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농업정책과(063-539-6183)에 희망일자과 장소 참여 인원 등을 밝히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전북 일자리정책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 고창군이 25일 2023년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인센티브 7000만원을 받았다.

고창군은 일자리 관련 심덕섭 군수의 공약사항 이행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청년1번가 개소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생태관광 등 중·장년 일자리, 체류공간 제공과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자리가 유지되고, 안정적인 창업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 일자리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지표, 고용서비스 플랫폼 활용도, 일자리창출 노력, 홍보 및 네트워킹, 4개분야 15개 항목의 일자리창출 실적 등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민의 특색 있는 관내 산업육성과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해서 양산되는 일자리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